

클릭! 불교 문화와 예술

미술·음악등 장르별 사이트 다양 어린이 찬불가·명상음악 네티즌 손길

클릭 한번으로 다양한 불교문화의 향취를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문화사이트들이다.

최근 들어 미술, 음악, 사진, 무용 등 분야별 관련 사이트가 하나둘 개설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네티즌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해, 보다 쉽게 불교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공연과 전시도 다시 볼 수 있고,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불교문화 사이트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수안스님의 선화 사이트(www.tongdosa.or.kr/suan-gallery_1.html)와 범주스님의 선묵화 사이트(www.moka.or.kr/bumju/kd/bumju.htm)는 불교의 선세계를 그림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해안스님의 불교서각 홈페이지(www.heaan.co.kr)는 스님의 작품세계를 비롯, 서각이야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교서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부다피아 갤러리(www.buddhopia.co.kr/gal/index.html)도 '사할서 만나보는 불교미술 코너'와 '수인전 코너'를 통해 불교미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특히 부다피아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던 원성스님은 최근 풍경 인터넷사이트(www.pungkyung.co.kr)를 독자적으로 마련해 네티즌들과 직접 대화까지 한다.

3천여점의 불교조각품을 소장하고 있는 목야불교박물관 홈페이지(www.moka.or.kr)도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불교문화사이트다.

불교음악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범현스님의 불교음악법패 사이트(www.pompae.or.kr)를 찾아가면 된다. 또 어린이

찬불가 사이트인 풍경소리(www.bdsori.co.kr)에서는 창작 불교찬불가를 리얼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으며, 홍순지의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사이트(user.chollian.net/~studiog/)도 찬불가곡과 독특한 불교명상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사이트(www.buddhistdancing.or.kr)에서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불교의식무용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전시와 실제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겸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지난달부터 불교인터넷텔레비전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는 김연숙씨의 촛불 사진전(www.buddhatv.com)이 바로 그것. 김씨는 인터넷상의 전시와 더불어 오는 22일~5월 2일 서울 백상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같은 불교문화사이트들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더 다양한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뿐 아니라 실제 전시장을 찾도록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opia.com)



◇일본불화와 달리 은은한 느낌을 지어내는 김용사 괘불탱.

괘불 보노라면 '환희심'

김용사 괘불탱 특별전

11일~9월30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거룩하고 위대한 대형 괘불을 직접 친견하면서,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은 11일~9월 30일까지 '김용사 괘불탱 특별전'을 연다.

김용사 괘불탱은 화폭 947x702cm의 대형으로 본존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2열씩 보살과 신중을 안팎으로 배치한 중오선(縱五線)의 독특한 구도를 가진 괘불탱이다. 특히 일반 불화와는 달리 권속들 사이에 여백을 많이 남기고, 여백을 간색조의 오색구름으로 가득 메워 은은하고 화사한 느낌을 지어낸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스님은 "앞으로도 매년 2회에 걸쳐 괘불특별전을 기획해, 박물관 소장 괘불뿐 아니라 전국 사찰에 소장돼 있는 괘불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전시에 앞서 11일 괘불을 야외법당에 모시는 절차인 괘불이운식을 재현했다. 괘불은 높이 10m이상의 초대형이 많아 1년에 한두 차례 영산재, 성도재와 같은 큰 야외법회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되는 데, 법회장소로 옮기는 절차가 매우 장엄하고 엄숙하다. 이날 괘불이운식은 지난 3월 19일 괘불이운을 전달할 목적으로 창립된 괘불찬양회가 맡아 통도사의 부도전에서 성보박물관까지 이운의식을 이끌었다.

전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수행과정 음악으로 표현"

음악회 '새천년의 봄' 연 윤소희-권은영씨

"자신을 버리는 수행의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결국 음악도 집착을 떠난 자리에서 가장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보여주었다."

작곡가 윤소희씨(동국대 국악과 교수)와 거문고 연주자 권은영씨. 부산대학교 동대학원에서 함께 국악을 전공한 불자음악가로 10년 인연을 이어온 이들이 3일과 4일 그 인연의 보따리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새 천년의 봄-윤소희와 권은영이 함께 여는 음악회'를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3일)과 부산 가람아트홀(4일)에서 연 것이다. 윤씨가 작곡한 음악들을 거문고 연주자인 권씨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함께 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연주회에서 선

보인 곡은 모두 네 곡.

동심의 순수함을 좇는 어린의 마음을 표현한 '놀이터', 구도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교의 심우도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한 '심우도',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과 한국 승려 혜초의 만남을 가상의 '손오공과 혜초의 여행',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 '새천년의 봄' 등이다.

"이번 연주회의 특징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미래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는 두 사람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북 등 우리 악기와 트라이앵글, 실로폰, 탬버린, 캐스터네츠, 드럼 등 서양악기를 함께 어우르고, 최신 유행음악인 테크노와 우리가락의 접목까지 시도했다.



◇10년 인연을 음악회로 펼쳐낸 윤소희(오른쪽)와 권은영씨.

이번 연주회에서 선보인 곡들은 곧 CD로 제작되며, '손오공과 혜초의 여행'은 오는 가을 발매할 아시아음악학회의 기념공연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작곡가 윤씨는 "불교적 감흥을 담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전국의 강원을 찾아 학인스님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신창순씨 '부처님 오신날'

불교사진연합회 회원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제5회 회원전이 10일~15일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사롱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부처님 오신날' '수행' '미소' 등 불교적 감흥과 풍경을 담은 사진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불교사진연합회는 오는 21일~28일 부천역 문예전시관에서 2차 전시를 실시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5월 3일~13일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원성스님 광고출연

다음 커뮤니케이션 CF
구도수행과 검색 '연기'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이 인터넷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TV광고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부터 지상파 3사에 방송될 예정인 이 광고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검색 기능만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과 같은 깊이 있는 철학 용어까지도 검색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의 박성혁 차장은 "구도자의 깊이 있는 수행 모습처럼 인터넷사이트도 심도있는 부분까지 검색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며 "컴퓨터 세대이면서 해맑은 구도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광고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것 같아 스님을 캐스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다음' 광고는 발명하는 인터넷사이트 속에서 구도하는 수행자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깊이있는 검색기능을 서비스 하겠다는 차별화된 광고라는 점에서 불교포교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불교음악협 동축음악회 9회 한국불교꽃예술전

한국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는 12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꽃다. 영원한 자비의 손길' 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1부에서 불교음악지도자연합합창단과 어린이연합합창단, 사암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찬불가를 선보이며, 2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초 연했던 오페라 '아미타불'이 재공연될 예정이다.

(02)734-0440

부처님오신날 맞이 제9회 한국불교꽃예술전이 17일~18일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꽃예술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꽃예술 전시회 및 화혼의식과 육법공양의식'이 선을 보인다. 또한 한국불교꽃예술회는 출품작도 접수한다. 작품주제는 사대명절, 불축분화, 관불화, 경전을 중심으로 한 꽃꽂이, 일반 꽃예술작품 등이다.

(02)2298-3377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10,000원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000원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 전4권 |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하라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소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함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나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6. 법구경 I	03. 탄트라 더운 계절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주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탄트라 秘典 II	06. 법구경 II	10. 심우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형 빈 가슴을 넘어서 남진	22.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산심명	15. 釋,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미조	19. 범의 연애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04. 탄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하얀 연꽃(대사자 강론)	16. 마음을 버려라 임제	20. 釋의 최고봉 백정파 대주	24. 서양의 꽃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첫부분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li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인출판사